



철학이 있는 호스피스 제공자를 꿈꾸며

조 근 순 목사

(충북대학병원 호스피스 실무책임자)

어느 철학자는 화병을 앞에 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해 보라고 했다. 제자들은 “꽃이 보인다”, “병이 보인다”, “꽃잎이 보인다”, “줄기가 보인다”, “반침대가 보인다”고 말했다. 철학자는 “그대들은 공간(SPACE)을 보지 못하는가? 공간이 없으면 화병이 어찌 놓여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두려움과 외로움,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는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제공자들은 철학자처럼 자신이 호스피스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배후의 공간과 그 환우의 인생 배후에 있는 공간을 볼 줄 아는 호스피스 제공자들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호스피스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성장과정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과 섭리를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호스피스를 하게 되는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도 이러한 공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내가 돌보는 그 환우의 아픔 배후의 공간이 무엇일까?

단순한 신체적인 아픔인지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의 아픔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인지 영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 소외감 고독감 열등감 절망감 추방감 같은 것인지 그 아픔의 정체를 볼 수 있을 때 더 전문적이고 영적인 호스피스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다. 호스피스 환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개인차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잎사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환우도 있다. 건강한 사람은 “참 희한하다 별꼴 다 보겠네. 그 나무 잎하고 인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다. 그 환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수용하고 그 마지막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로 붙들어 매어 줄 수 있는 호스피스 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암만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자!”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제공하자. “제가 언제 다시 오겠다”라는 말도 환우에게는 의미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작은 친절

과 미소, 곁에서 시공간을 같이 점유하면서 손잡아 주는 것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호스피스 환우를 평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보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It is the most beautiful thing)"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스피스 제공자 자신이 자기의 죽음을 연습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린 새들이 날기 위해서 수많은 날개 짓을 하고 난 뒤에 저 창공으로 훨훨 날아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자기 죽음 연습을 새가 날개 짓을 하듯이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 연습은 곧 버리는 연습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스피스 제공자는 환우에게 대등한 친구와 같은 입장으로 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공자는 우등하고 환자는 열등한 것이 아니다. 환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다. 서로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서로 유익을 얻게 된다.

언젠가 제가 봉사하고 있는 충북대 병원 7층 6인 병실에서 급하게 목사님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여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다급하게 병실로 가서 문을 두들겼다. 호스피스 환우(60대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만 상태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임종 기도를 하고 나서 환우의 얼굴을 보니 턱이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입이 벌어져 보

기에 흉측하게 되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 사망자 곁에 서서 30대 정도의 딸이 죽어 있는 아버지의 턱을 자꾸만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어 올리고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애절하게 울면서, 자기의 뺨을 죽어 있는 아버지의 뺨에 가져다 대면서 뺨을 비비면서 비탄에 겨워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때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나에게도 23세 되는 아들과, 27세, 25세 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곁에 와서 나의 뺨을 비비면서 울어 줄까? 생각하니 딸들에게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고 지나간 과거에 역기능 가족의 특성을 대물림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였다.

교류분석에서 자아상태들 중에 CP(비판적 아버지 상) 지수가 30점 만점에 27점이나 나온 나 자신을 생각나게 하였다. 너무나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고 어린 자녀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권위로 억누르기만 한 나 자신이 생각이 났다. 그 후 나는 가족간의 관계에서 조금씩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환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평안하고 아름다운 존엄 사를 맞이하도록 자신과 환우를 더 잘 돌보는 호스피스 제공자들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해 본다.